



불법 '비비탄총' 꼼작마라!

글_편집실

“ 어린이의 비비탄총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법 비비탄총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 방학기 비비탄총으로 인한 사고 예방

정부는 방학기 비비탄총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비비탄총'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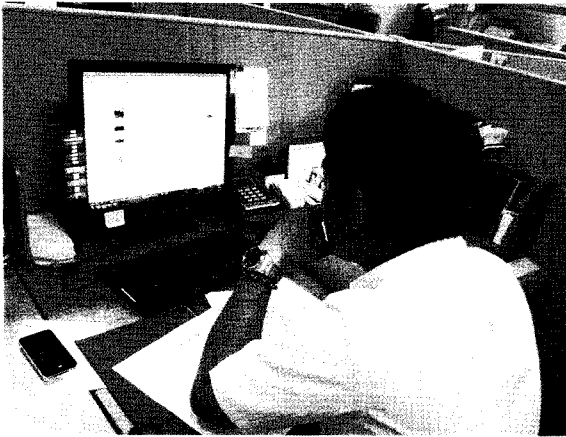
비비탄총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장난감 무기류 안전사고의 73% 이상에 해당될 정도이며, 이러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비탄총에 의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비비탄이 눈, 코, 귀 등에 맞거나 이물질이 들어가 병원을 찾은 경우가 대부



▲ 아이들의 방학시즌이 시작되었다.

분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60%가량이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서 발생되었다. 비비탄총은 8세 이상이 사용해야 하는 제품으로 각 가정에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품목이다.

현장조사를 하기전 철저한 사전조사로 금일 조사하게 될 지역을 선별하고 방문경로와 예상 시간을 체크한 후 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요원이 사전 실태 조사를 하고있다.

* 서울시 마포구 일대 현장점검

금일 조사할 지역은 마포구 초등학교 일대 주변의 문구 및 팬시점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합동 단속반은 협회, 인증기관, 지자체로 구성되어 해당 분야에 대해 면밀한 조사 및 현장계도를 통해 불법 '비비탄총'을 시장에서 뿌리 뽑는 역할을 한다.

처음 도착한 곳은 공덕초등학교 일대로 이 지역의 문구 및 팬시점은 1개 점포가 위치하고 있었다.

해당 점포에서 약 20여종의 비비탄총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조사 결과 인증을 받은 비비탄총만을 판매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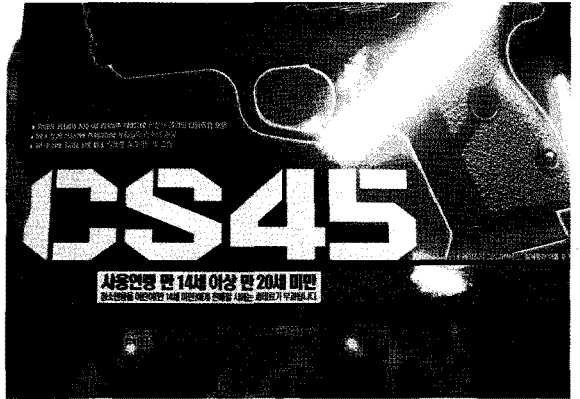
▲ 서울시 마포구 일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 불법제품 조사와 판매시 주의사항 홍보 활동

해당 점포의 주인에게 비비탄총을 판매시 사용연령을 확인한 후 사용연령 보다 연령이 낮은 어린이에게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였

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에 대해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비비탄총의 경우 제품에 사용연령이 표기되어 있어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제품을 구입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판매자에게 사용연령 식별요령 및 인증마크(KC)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통합인증마크(KC)의 식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 인증마크(KC) 식별방법 설명

다음으로 조사한 지역은 서울 마포초등학교 인근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2곳의 해당 점포가 자리하고 있었다. 해당 점포 역시 불법 '비비탄총'은 판매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중 한곳은 비비탄총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불법 '비비탄총' 합동 조사결과 대부분의 판매점은 인증이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판매시 인증마크와 사용연령 확인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사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비비탄총 사고로 인한 문제는 소비자의 부주의도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매자의 인증된 제품 판매와 더불어 사용자들의 사용연령 확인 및 올바른 제품사용 방법 숙지 등이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단속과 병행하여 비비탄총에 의한 위해 사고를 방지를 위해 비비탄 제품의 연질화, 보안경 착용 강화, 사용연령 식별가능 표시, 발사 안전장치 개발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